

### 삼인의 책들

책은 말하는 나무, 단단하고 부드러운 생명이다.

#### 예언자들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죽 등 구약성서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특징과 발자취를 살피면서 그들이 행한 예언의 의미를 살펴한 20세기 신학의 고전이다.

아브리함 J. 헤셀 | 이현주 옮김 | 784쪽 | 신국판양장 | 30,000원

#### 성의 역사학 — 근대국가는 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제국주의가 낳은 긴장과 모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근현대 일본의 성·생식통제와 사회운동을 무산계급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본다.

후지메 유키 지음 | 김경자, 윤경원 옮김 | 475쪽 | 신국판양장 | 23,000원

#### 홍군 VS 청군 — 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쟁탈전

21세기 세계의 제국으로 군림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세력 관계가 정치, 경제, 외교의 영역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그 대립의 쟁점은 무엇인가? 그 틈새에서 정치, 경제적 생존을 모색해야 할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한다.

이정훈 지음 | 394쪽 | 신국판 | 13,000원

####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 국민국가, 진보, 개인

민족과 국가의 이익, 발전을 개인의 삶보다 우위에 놓는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주술에서 한국사회가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획일화·평균화된 '국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모색한다.

권혁범 지음 | 272쪽 | 신국판 | 9,500원 | (신국판양장 | 13,000원)

이 책은 국제 정치에서 일상의 자잘한 구석까지 현대 세계의 삶의 전부를 포섭해오는 '자본'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본이 축적되는 메카니즘의 논리를 정확하게 규명하려 한다. 이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이루어지는 지구적 규모의 자본 축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어떠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자본이 현대 세계의 신으로 등극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어째서 그러한 이론적 작업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저자들은 그것을 막아왔던 가장 근본적인 장애로 현대 사회과학에 뿌리깊게 자리한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을 지목하고,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에서 자본과 그 축적의 메카니즘을 해명하고 있다. 자본을 '생산성'이나 '효율성' 등에 기반한 '경제적 존재'로 정의하는 기존의 '경제학적' 자본 이론을 해체하고, '사회의 생산적 과정에 대한 지배 권력'으로서 자본을 정의하며 새로운 시도로 정치경제학을 만들어간다.

— 「옮긴이의 말」 중에서

## 권력 자본론

심손 비클러 | 조나단 닛잔 지음 | 홍기빈 옮김

# Capital as Power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을 넘어서

## 권력 자본론

정치경제학은 응당 무너져야 한다. 그 기반이 되는 18세기식 기계적 세계관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며, 또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과도 모순 없이 양립시킬 길이 없다. …… 해답은 보편주의의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편주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질서, 진리, 조화 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욱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핵심 개념들을 그것이 진화해온 맥락에 비추어서 다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론과 범주를 다시 발명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낡은 정치경제학을 해체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경제학을 건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심손 비클러, 조나단 닛잔 지음 | 홍기빈 옮김



심손 비클러(Shimshon Bichler)와 조나단 닛잔(Jonathan Nitzan)

비클러와 닛잔은 자본주의 연구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학'과 '경제학'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분야가 따로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전통적인 접근법도 거부하지만, 그 둘을 '연결' 시키려 하는 소위 이단적 접근이나 포스트모던 류의 정치경제학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 두 분야는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독립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학과 경제학을 분리시키는 그릇된 이분법의 가장 심한 폐해는 전체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사회변화의 과정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 두 학문을 나누고 있는 장벽을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닛잔과 비클러는 자본은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적 권력 형태라고 보며 자본 축적은 그 권력 자체가 계속 '상표화' 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새로운 틀을 통하여 이들은 겉보기에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군비 확장과 평화,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스태그플레이션, 하이테크와 기업 합병, 지구화와 국제적 분쟁,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불안정, 회계제도와 정보의 정치학, 지배계급 형성과 노동 재조직화, 종교 이념 및 광고, 정당과 제도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정들이 금융 시장의 투자가들에 의해 '활인'되면서 자본의 축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비클러와 닛잔은 수십 년간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이스라엘, 중동, 미국,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대한 책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지구적 이슈들에 집중하여 지구적 자본에 대한 저작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 The Bichler & Nitzan Archives (<http://www.bnarchives.net>)에서 볼 수 있다.

조나단 닛잔은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토론토의 요크 대학(York University)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심손 비클러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 옮긴이 홍기빈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외교학과에서 「칼 폴라니의 정치경제학: 19세기 국제 금본위제를 중심으로」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토론토 요크 대학 정치학과에서 일본 기업 소유구조 변화에 대한 지구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전통적 사회과학의 국내/국제와 정치/경제라는 두 이분법을 극복하는 지구적 정치경제학(global political economy) 이론 체계를 만드는 일과 동아시아에 남아 있는 냉전적 질서를 극복하고 평화 지향적인 진보적 사회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이 있다. 저서로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한다』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마이클 레보윗츠, 『자본론을 넘어서』와 칼 폴라니,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가 있다. 월간 「말」지에 진보 이념의 모색을 주제로 한 글들을 연재하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 등에 종종 국내외 정치, 경제 문제들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 있다.



값 15,000원

삼인

삼인